제3장 거두어들이라

도 입

사람들은 흔히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준 뒤에 후회를 할 때가 있다. 정작 사과를 하려고 해도 쑥스럽거나 겸연쩍어서 대개 용기를 내지 못한다. 특히 윗사람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것만이 아니다. 친구나 아는 사람이 돈을 투자해서 무슨 사업을 하자고 제안할 때 무작정 허락했다가 낭패를 볼 때도 있다. 마음을 놓아버리고 미리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고 마음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실수하고 일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미리 공부를 해 두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행동이나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마음을 놓아버리지 않는 공부를 소개한다. 곧 몸과 마음을 한 곳으로 거두어들여 집중하는 수렴(收斂) 공부이다. 앞에서 소개한 몸을 닦는 수신(修身)의 한 분야로서 거경(居敬)에 해당하는 일이다.

본 문

[율곡의 풀이]

경(敬 :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은 성학(聖學: 성인이 되는 학문)의 처음이자 끝이다. 이제 경(敬)이 학문의 시작이라는 것을 취하여 궁리(窮理) 장 앞에 놓고 이것을 수렴(收斂: 거두어들임)이라고 제목을 붙여 『소학(小學)』의 공부에 해당시켰다.

[예기]

발걸음은 무겁게 떼며, 손 모양은 공손하게 하며, 눈 모양은 단정하게 하며, 입 모양은 다물게 하며, 말소리는 고요하게 하며, 머리 모양은 반듯하게 하며, 숨쉬기는 안정되게 하며, 선 자세는 덕스럽게 하

며, 얼굴빛은 장중하게 한다.

[주역]

공자는 말하였다. "군자는 방에 앉아서 말을 하여도 그 말이 착하면 천 리 밖에서도 응하니, 가까운 데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방에 앉아서 말을 하여도 그 말이 착하지 않으면 천 리 밖에서도 떠나가니, 가까운 데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말은 몸에서 나와 백성에게 미치고, 행동은 가까운 데서 나와 먼 곳에 나타난다. 말과 행동은 군자가 천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니, 삼가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맹자]

맹자가 말하였다. "사람이 닭이나 개가 달아나면 찾을 줄 알면서도 마음을 놓아 달아나버리게 하고서는 찾을 줄 모른다. 학문의 도리란 다른 것이 아니다. 그 놓아버린 마음을 찾는 것뿐이다."

[정씨유서(程氏遺書)]

함양(涵養: 착한 본성을 배양하는 것)은 모름지기 경(敬)을 사용해야 한다. 학문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지식을 지극하게 아는 데 달려있다.

[율곡의 풀이]

놓아버린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학문의 기초이다. 옛사람은 제 스스로 밥 먹고 말할 수 있을 때부터 바로 가르쳐서 행동마다 잘못이 없고 생각마다 지나친 것이 없었다. 그러니 양심을 기르고 덕성(德性)을 높였던 것이 어느 때 어느 일이라도 모두 그러했다. 그러므로 격물치지(格物致知 : 사물을 연구하여 앎을 이루는 것)의 공부가 놓아버린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것에 의지하여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공부는 하지 않고 곧바로 이치를 궁리하고 몸을 닦는 공부에 종사하려고 하니, 마음은 어둡고 어지러우며 행동이 규범에 어긋나서 공부를 하는 듯 안 하는 듯하니, 결코 성공할 리가 없다. 그러므로 앞선 훌륭한 선비들은 사람들에게 정좌(靜坐 :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바로 하여 조용히 앉음)를 가르치고, 또 구용(九容 : 『예기』에 나오는 아홉 가지 몸가짐)으로 몸가짐을 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배우는 자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이다.

해설

앞에서 율곡 선생은 자기 몸을 닦는 공부에는 거경(居敬)과 궁리(窮理)와 역행(力行)이 있다고 소개하였다. 궁리는 앎의 공부이고, 역행은 실천의 공부인데, 그 궁리와 역행 모두를 관통하고 있는 공부가 거경이다. 거경이란 경(敬)에 거한다는 뜻으로 몸과 마음에서 경(敬)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경(敬)이란 무엇인가? 한자 경(敬)의 뜻은 '공경하다', '삼가다', '잡도리하다' 등으로 새기고 있은데,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국 송나라 이후 철학자들은 이 경에 철학적인 의미를 더 부여하였는데, 특히 주자의 경우는 '정신을 집중하여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을 조심하고 삼가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경은 공부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처음이든 끝이든 다 해당되므로 학문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말했다. 율곡 선생은 여기서 거경을 수렴(收斂) 곧 '거두어들임'으로 말을 바꾸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의미는 모두 같다. 기초적인 몸가짐에서 시작하므로 『소학』에 나오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율곡 선생은 세 가지 문제로 거두어들이는 분야로 삼았는데, 첫째는 몸가짐이요 둘째는 말을 삼가는 것이요 셋째는 놓아버린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마음이나 몸가짐이 흐트러지지 않은 문제를 이치를 연구하는 궁리(窮理)의 공부보다 먼저 말하는 것은 거경(居敬)이 궁리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공부 그 내용보다 마음이나 몸가짐을 조심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요즘 일부 부모들은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하면 학생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고 맡겨버리는데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바로 율곡 선생이 말한 "지금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공부는 하지 않고 곧바로 이치를 궁리하고 몸을 닦는 공부에 종사하려고 하니, 마음은 어둡고 어지러우며 행동이 규범에 어긋나서 공부를 하는 듯도 하고 안 하는 듯도 하니, 결코 성공할 리가 없다."고 한 말이 지금도 유효하다. 더구나 요즘에 누가 자기 몸을 닦는 공부에 신경이라도 쓰는가?

이렇게 거두어들이는 문제를 요즘말로 '정신집중'이라고 말해 본다면, 아마도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공부든 일이든 정신을 집중해야 제대로 효과를 올릴 수 있다. 물론 율곡 선생이 말한 거두어들이는 문제는 도덕적인 면에 치중되어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도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이다.

생각해 볼 문제

1. 위의 글들을 보자면 외면의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는 것은 결국 그것에만 그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내면의 마음가짐을 단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하다면 주자의 견해처럼 공부도 당연히 견고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별로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는 조그만 몸가짐 하나가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에 끼치는 영향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겠다. 몸가짐·마음가짐·공부 이 세 가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몸가짐과 마음가짐의 관계 :

   *공부가 몸가짐과 마음가짐에 관계 되는 것 :

2. 몸가짐의 수렴에서 '입 모양은 다물게 해야 한다[口容止]'고 하여, 이미 사람이 입놀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따로 언어를 수렴하는 것을 한 절(節)로 삼은 것을 보면, 율곡 선생이 그만큼 이 언어에 대하여 주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우리 속담에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하였다. 본문의 『주역』의 글에서는 물론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바꾼다고 까지 하니, 말은 절대 방종하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이처럼 중요한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주변에서 예를 들어 말해 보자.

   *말 때문에 일을 그르친 사람 :

3. 맹자는 바깥으로 치달리는 마음을 다시 제 몸 안으로 거두어들여서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학문의 요체라고 하고 있다. 마음 없이는 그 어떤 학문적 활동도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 보통사람들의 마음을 제 몸 바깥으로 치달리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4. 거경(居敬)은 정신을 집중하여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정신을 집중하지 못한다면 작은 일도 할 수 없을 것인데, 하물며 독서하여 궁리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거경을 궁리의 근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게 집중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집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 어떤 일에 집중하였는지 한 가지 찾아서 써보고, 그 이유를 말해 보세요.

*집중했던 일과 그 까닭 :

5. 현대 심리학에 의하면 사람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마음먹은 대로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율곡 선생의 '마음을 거두어들인다'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아닌지, 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공부를 해야 할지 각자의 생각을 말해 보시오.

敖(오)는 不可長(불가장)하고 欲(욕)은 不可從(불가종)하고 志(지)는 不可滿(불가만)하고 樂(낙)은 不可極(불가극)이니라 (『예기』).

한자 풀이와 해설

敖 : 오만하다, 거만하다/長 : 자라다, 길다/欲 : ~하고자 하다, 욕심/從 : 좇다, 방종하다/志 : 뜻/滿 : 가득 차다, 만족하다/樂 : 즐기다/極 : 다하다, 극진하다

*주어는 일반 사람으로 모두 생략되어 있다.

*敖, 欲, 志, 樂은 제각기 동사 長, 從, 滿, 極의 목적어로서 도치되어 있다.

*不可 :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를 나타내는 말로 동사 앞에 붙는 말

해석

오만함은 자라나게 해서는 안 되고, 욕심은 방종하게 해서는 안 되며, 뜻은 만족해서는 안 되고, 즐거움은 끝까지 채워서는 안 된다.

맹 자 왈 인 유 계 견 방 즉 지 구 지 유 방 심 이 부 지 구
孟子曰 人이 有鷄犬放則知求之호되 有放心而不知求하나니
학 문 지 도 무 타 구 기 방 심 이 이 의
學問之道는 無他라 求其放心而已矣니라(『맹자』).

한자 풀이

孟 : 맏, 맏이/子 : 아들, 위대한 스승의 성씨 뒤에 붙이는 말/曰 : 말하다, 이르다/人 : 사람/有 : 있다/鷄 : 닭/犬 : 개/放 : 놓다, 달아나다/則 : 곧, 법칙/知 : 알다/求 : 구하다, 찾다/之 : 가다, 대명사, ~의/心 : 마음/而 : 말을 잇는 접속사/不 : 아니하다/學 : 배우다/問 : 묻다/道 : 도리, 길/無 : 없다/他 : 다른(것)/其 : 그/已 : 이미, 그치다, 문장의 끝에 오는 어조사/矣 : 문장의 끝에 오는 어조사

*有鷄犬放則知求之 : 則은 '~하면'의 조건을 나타내는 말로서 직역하면 '닭이나 개가 달아나면 그것들을 찾을 줄 아는 것이 있다'이다. 之는 닭과 개를 가리키는 대명사. 有는 주어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다.

*有放心而不知求 : 어조사 而는 '~하고' 또는 '~이(하)나'의 뜻을 가지고 문장을 연결해 주는 말인데 여기서는 순접으로 직역하면 '마음을 놓아버리고 찾을 줄 모르는 것이 있다'이다.

*而已矣 : 문장 뒤에 이 세 글자가 붙으면 '~뿐이다'의 뜻으로 강하게 단정하는 표현이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방심(放心) : 마음을 놓아버림. 뜻이 변하여 안심하여 주의를 하지 않음

*구방심(求放心) : 놓아버린 선한 마음을 되찾는 일

해석

맹자가 말하였다. "사람이 닭이나 개가 달아나면 찾을 줄 알면서도 마음을 놓아 달아나버리게 하고서는 찾을 줄 모른다. 학문의 도리란 다른 것이 아니다. 그 놓아버린 마음을 구하는 것뿐이다.